‘고려 벽화묘’ 창화공 권준 묘소

앞의 큰 묘비(오른쪽)와 그 옆의 작은 비석(문열공 한상질)은 정주한씨 문중에서 세운 묘비이고, 묘소 바로 앞에 세워진 묘비는 안동권씨 창화공 종중에서 세운 묘비이다. 또한 12지신 상을 두른 앞의 묘소는 고려 벽화묘 창화공 권준의 묘이고 비석에 가려져 있는 뒤의 봉분은 한상질의 묘이다.

묘소 내부에 그려진 벽화

고려 벽화묘로 유명한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 추밀공파 14世) 묘소는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 위치한다. 전진교에서 임진강을 건너 비무장지대로 한참 들어간 곳이다. 지난 9월 9일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권병선 창화공 회장을 비롯하여 권병문 총무, 권혁찬, 권오창, 권송렬, 권신연, 권진록, 권홍연, 권치연, 권진혁, 권혁소, 권영부 대성풍수지리연구소 소장, 권순범, 권주봉, 권순두, 권성욱 등 후손 17명이 참석하여 벌초 작업을 실시했다. 서울, 양주, 용인, 진위, 비봉 등에서 후손들이 손수 예초기를 직접 가지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벌초 작업을 했다. 창화공 후손들은 한식 때, 벌초할 때, 시제 때 등 다른 종중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화합하고 단결을 잘 한다고 했다. 권병선 회장은 이 단합된 모습이 창화공 후손들의 자랑이라고 소개했다. 권병선 회장은 20여년 동안 창화공 회장을 맡아 창화공 종중을 이끌고 있다. 아마도 권병선 회장의 리더십도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비무장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려 벽화 묘소에 대한 벌초 작업이 있다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권병선 회장과 동행했다. 고려 벽화 묘소는 몇 년 전에 와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권병선 회장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후손들이 지난 3월 묘소를 새로 단장하며 12지신 상을 둘렀다고 설명해 주었다. 권병선 창화공 회장을 비롯한 후손들은 600여 년 동안 실전(失傳)되었다고 믿었던 창화공의 묘소를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신고된 도굴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묘지석이 발견되어 청주한씨와 대법원(2004년 12월, 2004다 15003)까지 가는 법정 분쟁을 통해 결국 600여 년동안 청주한씨에서 관리하던 무덤의 진짜 주인을 찾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석곽 내부에 벽화가 그려진 고려 벽화묘소임이 세상에 알려졌고 출토된 묘지석을 근거로 창화공 권준의 묘임이 밝혀졌다. 1993년 7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조사 보고서〉도 발간했다. 묘지석에는 가장 상단에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公墓銘)’이란 제액 8자가 전서체(篆書體)로 가로로 씌어 있고, 그 아래의 제목과 내용은 ‘유원고려국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길창부원군 권공묘지명병서(有元高麗國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吉昌府院君權公墓誌銘幷序)’란 제하에 해서체(楷書體)로 세로로 씌어 있다. 창화공의 생전 행적, 증조 및 조부와 자녀, 손(孫)에 이르기까지의 가보(家譜), 분묘를 조성한 경과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묘지석이 창화공 묘임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창화공 권준 묘소, 후손들이 새롭게 단장했다.

묘소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고, 창화공의 묘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청주한씨 문중에서 600여 년 동안 문열공 한상질의 묘로 알고 관리해 왔다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두 기의 묘가 앞뒤로 바짝 달라붙어 자리하고 있어서 뒤의 묘소 앞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청주한씨 후손들은 뒤의 봉분은 한상질의 묘이고 앞의 봉분은 한상질의 부장품이 묻힌 부장묘(또는 부인의 묘)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묘지석을 조사한 결과 뜻밖에도 안동권씨 창화공 권준의 묘로 밝혀졌다.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화공의 묘라고 밝혀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안동권씨 창화공 종중에서는 묘소 앞에 역사적인 묘비를 세웠다. 그래서 현재 묘역 주변에는 청주한씨 문중에서 조선시대에 세운 문열공 한상질의 작은 묘비와 1990년대에 세운 큰 묘비와 함께 3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묘비들은 고려 벽화묘에 얽힌 사연들을 역사적 증거가 되어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권선홍, 종보 2021년 3월호 8면 참조)

창화공 후손들이 벌초 작업을 마치고 고려 벽화 묘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문열공(文烈公) 한상질(韓尙質, ~1400)은 누구인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에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으로써 국호(國號)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9일) 이때 한상질은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인물이다.

또한 한상질은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擥, 1416~1465, 추밀공파 18世)과 함께 계유정란을 일으킨 한명회(韓明澮, 1415~1487)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상질은 창화공 권준의 둘째 아들 길창군 권적(權適)의 사위 한수(韓脩 1333~1384)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상질은 창화공 권준의 외증손이 된다.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끔찍이도 아꼈다. 그녀가 사망하자 자제위라는 기구를 설치해 젊고 잘생긴 청년들을 끌어들여 시중을 들게 했다. 그러나 공민왕은 얼마 가지 않아 자제위 홍륜과 최만생 등에 의해 시해되고 만다. 한 나라의 군주가 시해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때 창화공 권준의 증손자인 권진도 자제위 소속이었고, 공민왕 시해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집안이 온전할 리 없었다. 형제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사방으로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처지에 창화공의 제사를 어떻게 지낼 수 있었겠는가. 이때 청주한씨 문중에서 사돈집안이자 한상질의 외가 어른의 묘 바로 뒤에 한상질의 묘를 써서 제사 등을 지내고 묘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2001년 12월에 창화공 권준의 묘를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 문화산책

권원순의 미술순례기

권원순(부정공파, 37世) 전 교수가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구 대백프라자갤러리 초대전을 열었다. 80여 년을 살아오면서 생애 첫 작품전이고 마지막 작품전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권원순의 미술순례기〉를 준비했다. 초대전을 할 정도인데도 나는 전문 화가가 아니라고 겸손해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각적 체험과 표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를 보여주는 교육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생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상상한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구상부터 추상을 거쳐 오브제(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작품까지 자유의 가능성을 믿고 선보이는 이번 전시가 작가는 ‘내 생애의 부활이다’라고 선언한다. 어떻게 부활한 걸까. 그 깊은 사연과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물4 oil on canvas

점1 acrylic on canvas, 72.7x60.6

어느 화가의 유산

천지를 창조한 첫날에 빛과 어둠이 있었다. 빛과 어둠에 의해 우리는 사물의 형태와 형상을 파악하게 된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물리적 작용에 의해 눈에 포착되고 이것은 다시 생리적 작용에 의해 머리에 인지되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사유되고 이미지가 형성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위의 사물이나 현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고 기억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눈의 잔상과 머리의 기억과 가슴의 새김을 재현하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림그리기는 일상에 파묻혀 안타깝게도 내 의식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36세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출근하다가 골목길에서 심한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과거를 추상해 보니 역시 그림이었다. 퇴원하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소년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예지와 소설, 미학과 미술사, 역사, 철학과 종교 등 책 읽기, 영화와 음악 감상, 시, 수필, 희곡, 비평문 등의 글쓰기, 하모니카, 바이올린, 섹소폰, 우쿨렐레 등의 악기 연주, 그림그리기, 연극 연출 등으로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예술이란 영토를 배회하는 나의 영혼은 언제나 허구(fiction)의 세계에 함몰되고 현실에 밀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다니고 있었다. 현실에의 불만과 부정은 나로 하여금 이상세계를 향해 떠나게 했고 나는 떠나고 또 떠나야 했다. 이와 같이 현실과 이상의 충돌에서 파생되는 기쁨과 고통은 그림이란 나의 마지막 성지를 향한 긴 여로의 간이역들이었다.

작가는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을 노경에 이르러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취미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의 길로 첫발을 내딛으니 무궁하고 신비한 세상에서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말한다.

또한 예술의 길로 첫발을 내딛은 작가는 “예술가는 기존의 언어 즉 인식의 세계, 약속된 언어의 세계에서 벗어나 무한한 미지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언어를 낚아 올리는 낚시꾼이다. 기존의 언어를 되풀이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며 예술가의 행위가 아니다. 예술가는 기존의 언어 즉 사물의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의미의 무의미화이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물은 하나의 의미로 한정된다. 기존의 의미를 삭제함으로써 의미 부여로 지워진 많은 의미를 되찾게 된다.” 작가는 빛과 어둠을 엮으며 낯설고 생경한 언어를 빚어내면서 새롭게 탄생한다. 부활이다.

권원순 작가는 1939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의 미술이론 교수로 27년 재직하고 정년퇴임했다. 1976년부터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대구서양화 60년사 전〉, 〈삶의 궤적과 이상〉 등을 기획 전시하였고, 〈대구근대문학예술사〉와 〈경상도 700년사〉 등의 미술편을 집필하고 수많은 미술평문과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대구평론가협회 회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자문위원, 대구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구미술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율장군 창의비 탐방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에는 광주공원이 위치한다. 광주광역시 제1호 공원이다. 광주공원과 광주향교 사이 비석군에는 각양각색의 비석(碑石) 27기가 즐비하다. ‘광주공원 선정비군(善政碑群)’으로 특별한 곳이다. 광주 시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적비를 1957년 공원 입구에 모았다가 1965년 다시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다.

비석군 중앙에는 ‘도원수 충장 권공 창의비(都元帥忠壯權公倡義碑)’가 우뚝하다. 비문에는 의병을 모아 ‘이치 전투’에서 호남을 온전히 지켜낸 장군의 공을 치하하여 ‘전라도 순찰사’에 승차한다는 내용과 행주 전투 승전을 보고받고 ‘팔도 도원수(都元帥)’로 제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측면에는 전투에 참여한 제장 26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금남군 충무공 정충신을 비롯하여 김덕령· 고인후· 선거이 등등. 그런데 어떻게 권율장군을 기리는 창의비가 광주공원에 서 있을까.

권율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의주목사로 근무 중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서애 유성룡의 추천으로 다급하게 권율장군을 광주목사로 임명한다. 권율장군은 광주에 내려가자마자 나라의 위급함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젊은이들이 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광주 도처에 붙인다. 이로써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로운 백성들, 의병이 모여들었다. 일명 전라도 병력이다. 권율장군은 전라도 병력을 이끌고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 자락에서 벌어진 이치대첩에서 첫 승리를 거둔다.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의 승리였다. 이치대첩은 왜군이 곡창지대 전라도를 장악하여 물자와 보급품을 조달하려는 전략을 여지없이 꺾은 것이다. 전세를 뒤집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독산성 전투와 행주대첩에서도 전라도 병력은 크게 활약하여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11세 후손 권재윤 공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01년 신축년에 광주군수로 부임하여 ‘도원수 충장 권공 창의비(都元帥忠壯權公倡義碑)’를 세웠다. 구한말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국지사 은진 송병순이 비문을 짓고 후손 권재윤이 글씨를 썼다.

김순흥 전 광주대학교 교수(왼쪽), 권행완 편집국장

일본국권침탈 협력자 윤웅렬, 이근호, 홍난유의 비석이 쓰러져 있다.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 홍난유 단죄문

이렇게 세워진 조선 최고사령관 ‘도원수 충장 권공 창의비(都元帥忠壯權公倡義碑)’는 초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한일합병에 적극 협조하여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던 윤웅렬(尹雄烈 1840~1911)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李根澔 1861~1923)의 비에 의해 에워싸여 있었다. 윤웅렬은 일본인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대적 도움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그는 4대 관찰사도 지내고 1911년 사망한다. 그의 남작 작위는 아들 윤치호가 이어받는다. 윤웅렬에 이어 5대 관찰사를 지낸 이근호는 본인을 포함해 세 형제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순흥 전 광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왜군과 싸워 나라를 지킨 권율장군 창의비와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친일파의 비석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느냐며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알리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19년 8월 윤웅렬, 이근호, 홍난유(1856~1913)의 비석을 땅에 넘어뜨리고 단죄문을 세워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의 죄상을 밝히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